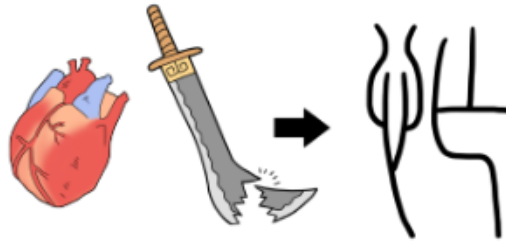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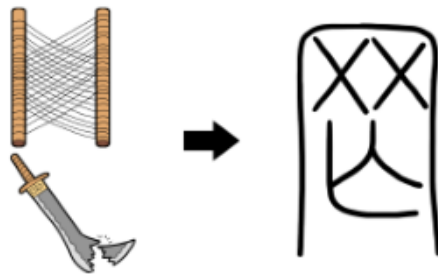
바쁠 망

忙자는 '바쁘다'나 '분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忙자는 心(마음 심)자와 亡(망할 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亡자는 부러진 칼날을 그린 것으로 '망했다'나 '잃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忙자는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忘(잊을 망)자와도 같다. 그래서 두 글자 모두 '마음(心)을 잃다(亡)'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忘자는 마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잊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忙자는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를 잃다'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조차도 잃게 되는데, 忙자는 그 정도로 바쁘다는 뜻이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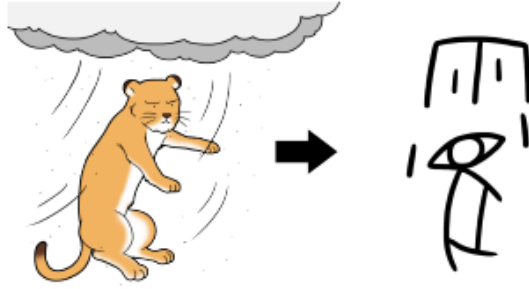
없을 망

罔자는 '그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罔자는 网(그물 망)자와 亡(망할 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网자에 이미 '그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亡(망할 망)자를 더한 罔자도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罔자는 网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별체(別體)자이지만 단순히 '그물'이라는 뜻 외에도 '속이다'나 '(사리에)어둡다', '근심하다'와 같이 그물에 걸려든 상황과 연관되는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亡자가 가진 의미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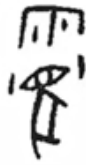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埋

묻을 매

埋자는 '(땅에)묻다'나 '장사지내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埋자는 土(흙 토)자와 里(마을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서는 두 종류의 글자가 '묻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나는 雨(비 우)자와 狸(삿 리)자가 결합한 𡇗(흙비 매)자이다. 이것은 흙먼지 바람을 맞고 있는 삶을  그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덩이에 양을 묻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지금은 이 두 종류의 글자가 서로 결합한 埋자가 쓰이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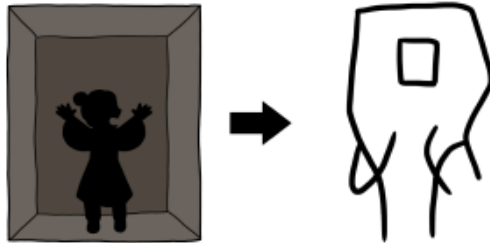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冥

어두울
명

冥자는 '어둡다'나 '어리석다', '(생각에)잠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冥자는 冖(덮을 먹)자와 日(말씀 왈)자, 六(여섯 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冥자의 갑골문을 보면 冖자 안에 口(입 구)자와 井(받들 공)자가  려져 있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 갇힌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양손이 벽을 향해있는 것은 너무나 어두워 벽을 더듬고 있는 모습이다. 口자는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소리를 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금문에서는 日자와 바뀌었다. 양손 역시 六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冥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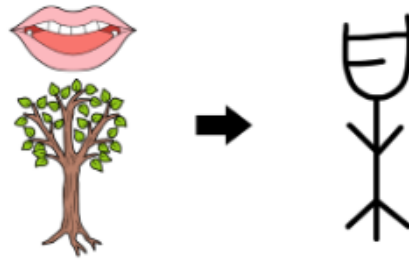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某

아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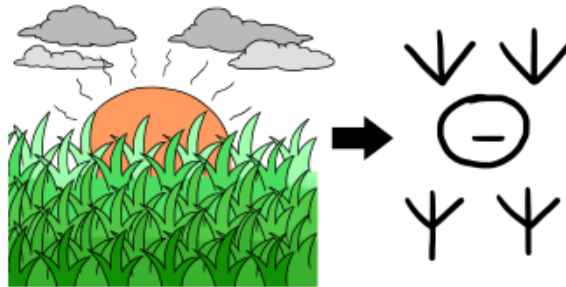
某자는 '아무'나 '어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某자는 木(나무 목)자와 甘(달 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甘자는 혀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맛이 좋다'라는 뜻이 있다. 某자는 본래 매실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맛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뜻했었다. 그러나 후에 '아무'나 '어느'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梅(매화나무 매)자가 본래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暮

저물 모:

暮자는 '(날이)저물다'나 '(시간에)늦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暮자는 莫(없을 막)자와 日(해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풀숲에 해가 잠긴 𣎵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저물다'라는 뜻은 莫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날이 저물어 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해서에서는 여기에 日(날 일)자를 더한 暮자가 '저물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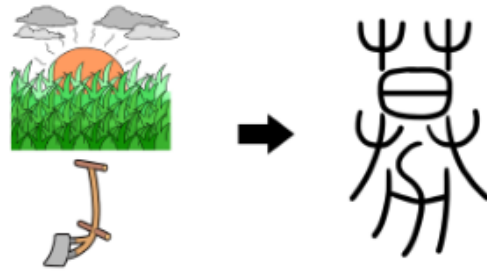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募

모을/뽑
을 모

募자는 '모으다'나 '뽑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募자는 莫(없을 막)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莫자는 수풀 사이에 해를 그린 것으로 '없다'라는 뜻이 있다. 募자는 이렇게 '없다'라는 뜻을 가진 莫자에 力자를 결합한 것으로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힘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모으는 것과 무슨 관계인 것일까?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募자는 일손이 부족하니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모으다'나 '뽑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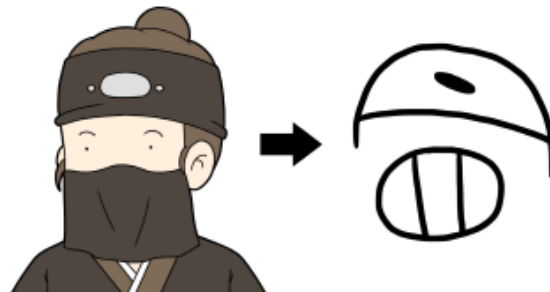
𠂔

소전

募

해서

회의문자①



冒

무릅쓸
모

冒자는 '무릅쓰다'나 '거짓으로 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冒자는 冃(쓰게 모)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冒자의 금문을 보면 눈 위로 무언가가 冃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자를 착용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冒자의 본래 의미는 '모자'였다. 그러나 후에 마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다고 하여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짓으로 대다'나 '(위험을)무릅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市(수건 건)자를 더한 帽(모자 모)자가 '모자'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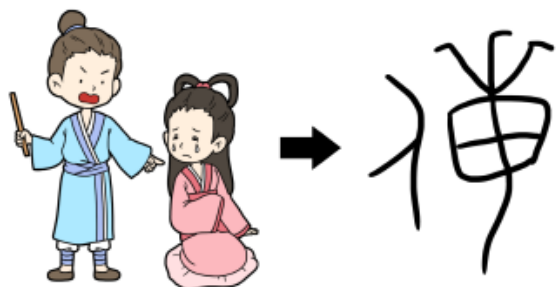
冃

소전

冒

해서

회의문자 ①



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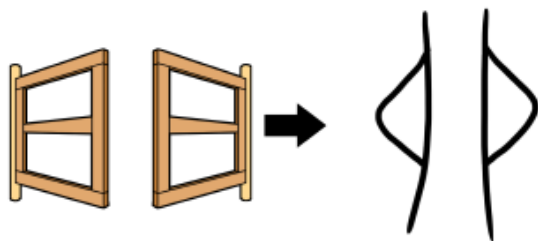
업신여길
모(:)

侮자는 '업신여기다'나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侮자는 人(사람 인)자와 每(매양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每자는 母(어미 모)자에 비녀를 꽂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고대에는 母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었다. 이렇게 어미를 뜻하는 每자에 人자를 결합한 侮자는 누군가를 어미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每자는 업신여겨지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人자는 괴롭히는 사람으로 표현됐다.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卯

토끼 묘:

卯자는 '토끼'나 '지지(地支)'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십이지(十二支)의 하나를 말한다. 卯자는 卩(병부 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卩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卯자에 대한 해석은 총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卯자가 쓰인 窰(바꿀 무)자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땅속에 굴이 파여 있는 모습이라는 해석이다. 겨울에 채소를 넣어두는 굴을 뜻하는 窰(음교)자가 바로 그러하다. 卯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도 卯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